

어린이와 함께 자란 '계몽사' 40년

출판계 최초로 社史 펴내... '계몽문화센터'도 개관

'계몽사'라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지금 30대 이하의 청·장년이면 대개는 계몽사의 책 한두권쯤은 읽고 자랐을 것이다. 그렇기에 계몽사는 '아동도서 출판의 명문'이라는 이름에 충분히 값한다.

바로 그 계몽사가 지난 11일 강남구 역삼동에 거창한 '계몽문화센터'를 개관했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그동안의 발자취를 '啓蒙社四十年'이란 책으로 엮어냈다. 이 두가지 이벤트는 어느모로나 출판계에 '충격'을 주기에 넉넉하다.

특히 「계몽사40년」(4×6배판 438면)은 우리나라 출판계 최초의 社史로서 앞으로의 출판사 社史편찬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출판사로서는 드물게 自社의 업무 체계에서 판매정책과 조직, 재무현황 그리고 주식공개 방침에 이르기까지 '계몽사의 모든 것'을 벌거벗겨 드러내보이고 있어 흥미를 준다.

해방직후 大邱에서 서점으로 출발

계몽사는 8·15직후인 1946년 봄 대구에서 서점으로 출발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창업자 金源大씨(67·계몽사 회장·계몽문화재단 이사장)가 적수공권으로 대구에 올라와 신문가판 등 천신만고 끝에 밀천을 장만, 조그만 서점을 차린 것이 오늘의 계몽사의 첫 걸음이었다. 金회장은 타고난 부지런함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성,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서점을 단시일내에 발전시켜, 47년 말에는 안동·포항·밀양 등 지방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상을 겸하게까지 되었다.

서점이 기반이 잡히자 金회장은 48년 미군 정청에 출판사를 등록, 李雪舟시집 「放浪記」를 처녀출판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로 터전을 옮겨 국문학자 金思燁의 「鄭松江研究」 등 학술서적과 「한글사전」 「영한사전」 등 사전류를 발행했다.

다음해 6·25가 일어나자 1·4후퇴로 대구로 내려가 학습참고서 「完壁시리즈」를 체계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출판물도매회사인 「한국출판물판매주식회사」를 설립, 한때 호황을 누렸으나 유통구조의 문란과 자금회전의 경색으로 53년 말에 판매회사가 倒産하는 좌절을 겪었다.

54년 봄 金회장은 모처럼 기틀을 다졌던



역삼동에 자리잡은 '계몽문화센터'. 지하3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주부와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학습센터, 4층 이상은 '계몽그룹'의 센터로 활용된다.

대구를 떠나 다시 상경, 출판에 전념하게 된다. 계몽사로서는 제2의 創社를 맞은 것이다. 처음에는 朴木月의 「文章講話」 등 단행본과 학습참고서 「分析시리즈」를 발행, 사세를 신장시켜 나갔다.

계몽사의 '운명을 바꾼 책'

그러다가 59년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 발간을 계기로 계몽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한다. 이해부터 62년까지 전50권으로 간행된 이 전집은 계몽사 최초의 아동도서로서 그야말로 '계몽사의 운명을 바꾼 책'이기도 하다. 그 무렵 출판계는 만성적인 불황을 타개하려는 몸부림으로 대형 전집물의 기획출판에 주력, 판매방식도 가정방문·월부판매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외국의 명작동화들을 체계적으로 망라한 계몽사의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은 황무지나 다름없던 아동도서 출판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전국의 각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이 전집은 계몽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히트 상품으로 올해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판을 거듭해 오고 있다.

계몽사가 59년 이래 지금까지 내놓은 아동도서는 전집만도 총 53종 947권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을 두고 꾸준히 팔리는 롱셀러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앞서의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 외에도 「소년소녀 한국전기전집」(전20권)이 수명 23년째로 65판, 「컬러 학습대백과」(전10권)와 「소년소녀 세계위인전집」(전20권)이 각각 수명 18년째로 50판, 「과목별 학습백과사전」(전15권)과 「어린이의 능력개발」(전12권)이 각각 수명 13년째로 36판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이밖에도 수명 10년째 안팎으로 10여판에서

20여판을 거듭해 오는 전집물이 수도룩하다. 이는 뛰어난 판매조직에 힘입은 바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계몽사 아동도서'의 질적 우수성이 대량보급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주식공개로 기업의 사회화에 박차

계몽사는 76년 12월 주식회사 형태로 개편되면서 金源大사장이 회장으로 2선에 몰려왔고, 그의 차남 金春植씨가 사장으로 취임한다. 경영학도 출신의 현 金사장(42)은 부친이 창업한 계몽사를 단순히 守成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매조직망을 확대하는가 하면 출판 이외

의 영역에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등 만만치 않은 경영수완을 보여 출판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계몽사는 현재 서울·부산·대구·대전에 주식회사 형태의 5개 판매회사와 그 밑에 총71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 판매망은 외관업계에서도 견실하기로 소문이나 있다.

한편 金회장은 출판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74년 경북 안동군 일직면에 吉原女高를 설립, 작년까지 3,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78년에는 溫陽민속박물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특히 온양민속박물관은 경내면적 2만4천여평에 2만여 점의 전시품을 갖추어, 연간 수십만명이 찾아드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계몽사는 해마다 「전국독서감상문모집대회」와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야구대회」를 주최하는 외에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小泉아동문학상' 등 시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어쨌든 11월11일 '계몽문화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가까운 시일에 주식을 공개, 기업의 사회화를 가늠하고 있어, 계몽사는 이제 또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승우 주간

어린이와 주부를 위한 문화공간 '계몽문화센터'

강남 테헤란路에서 남쪽으로 뚫린 역삼동 큰길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과 일직선상에 '계몽문화센터'가 수려한 모습으로 서 있다.

지상 10층, 지하 4층, 연건평 6,500평의 계몽문화센터는 지상 3층까지는 석재로, 4층 이상은 균청색 반사유리로 마감한 현대적 감각의 건물이다. 건물 외벽에는 '동심천국' '바람무늬' 등을 주제로 한 금누리, 안형남, 강은엽, 양주혜씨 등의 조각작품과 부조들이 장식되어, 어린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조형적인 미감이 돋보인다.

문화센터는 지하에서 지상 3층까지, 크게 '어린이 궁전' '영아트홀' '돌고래 수영장' '계몽문화교실' '영플라자' 등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 1층에 자리잡은 '어린이궁전'은 체험놀이 공간·우리는 컴퓨터친구·창작놀이 광장·과학놀이 코너 등 6개

코너에 80여종의 시설이 마련돼 있고, '영아트홀'은 600여개의 좌석을 갖춘 예술공간으로 뮤지컬·연극 등이 공연된다.

지하 2.3층에 자리잡은 '돌고래수영장'은 3개의 대형 풀을 중심으로 어린이 체육관, 에어로빅 스튜디오, 유아놀이방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밖에 '계몽문화교실'에서는 주부와 어린이를 위한 각종 교양강좌, '영플라자'에서는 커피숍·카페·선물가게와 함께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각 기능별 입장료·수강료 등을 받는 외에 회원제도 운영하고 있다. 종합안내는 전화 5595-114.

4층 이상은 계몽사를 비롯해 계열기업들이 입주, 가히 '계몽그룹'의 센터 구실을 겸하고 있다.